

# 항공우주산업 2000년 실적과 2001년 전망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기획관리이사 | 김영갑 |

## 2000년 총 수급규모 23억 1백만불

2000년도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수급규모는 9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해 오다가 3년만에 처음으로 소폭이나마 증가세로 반전되어 전년대비 10.9% 증가한 23억불을 기록하였고 내용 면에서도 공급 부문의 생산, 수입과 수요부문의 내수, 수출이 모두 증가하였으며 특히 생산과 수출이 모두 2자리수의 증가율을 시현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상황임에는 틀림없으나 이러한 증가세가 2001년도까지 이어 지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1 참조)

이와 같이 생산이 전년대비 142% 증가한 것은 우리의 손으로 독자설계 개발한 KT-1 사업과

KFP-2 사업이 양산에 돌입하였고 T-50 시제기 개발사업과 다목적실용위성 2호 개발사업이 본격화되었을 뿐 아니라 기타 KLH, SB427 사업 등이 활발히 진행되었기 때문이며 수출이 전년대비 20.9% 증가한 것은 손익측면은 논외로 하더라도 Boeing 717의 전방 동체와 날개 조립생산이 활발하였을 뿐 아니라 내수 부족에 따른 미국, 유럽 Major 항공사에 대한 적극적인 수출활로 모색으로 기체 부품 및 소재 부품 등의 수출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수입과 내수가 소폭이나마 증가한 것은 주로 운항사업의 회복으로 인한 여객기 수요가 증가하였고 국내 생산 및 수출용 부

품·소재 등의 원·부자재의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체적인 수급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형 민항기 수입이 활발하던 '90년대 중반기의 20억불 수준의 무역수지 적자가 대폭 감소하긴 하였으나 '98년도 이래 매년 8억불 수준의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민항기 수요를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우리의 산업구조하에서 불가피한 결과이나 다소나마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품·소재의 기술개발과 수출촉진이 시급한 과제이며 장기적으로는 완제품 개발과 수출을 위한 국제공동개발 사업 주도 또는 참여를 강구해야만 할 것이다.

[표1] 수급동향

(단위 : 백만불)

구 분	'98		'99		2000		2001(E)		
	실 적	증 감(%)	실 적	증 감(%)	실 적	증 감(%)	전 망	증 감(%)	
공급	생산	1,110	-12.5	1,009	-9.1	1,152	14.2	1,132	-1.7
	수입	1,175	-42.8	1,080	-8.1	1,165	7.9	1,160	-0.4
계	2,285	-31.3	2,089	-8.6	2,317	10.9	2,292	-1.1	
수요	내수	1,972	-37.0	1,831	-7.2	2,005	9.5	1,964	-2.0
	수출	313	47.6	258	-17.6	312	20.9	328	5.1

주 : 1) 환율 '99년 1145/1USD, 2000년 : 1130원/1USD 적용, 2)수입은 무역협회의 무역통계 인용, 3) 수출은 P/O 내도 및 계약금액 기준으로 통관기준과는 차이가 있음

**2000년 수주 11억 44백만불,  
인도 11억 52백만불,  
잔고 34억 92백만불**

생산 및 수출의 선행지표인 2000년도 수주실적은 11억 44백만불로 이중 70%가 국내, 30%가 해외로부터 수주된 것으로 인도 실적보다 8백만불 부족함에 따라 수주 잔고는 34억 92백만불로 약간 감소한바, 이는 KFP-2사업으로 20대의 군용항공기 신규 발주와 ERJ, Airbus, Boeing 등의 해외사업으로부터의 부품·소재 수주가 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KT-1, T-50 개발사업 등 인도실적에는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금년도에는 국내외 여건상 수주 및 수주잔고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FX 및 AH-X, KMH사업 등의 군수 Project의 향배에 따라 국내 부분의 수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해외 부분에서는 A-380(A3XX)사업 등의 국제 공동개발사업 참여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2000년 총 인도실적은 11억 52백만불이며 이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전체 인도실적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완제기 분야는 KFP, UH-60 사업이 종료되었던 99년에 비해 KT-1, KFP-2 추가사업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21.6% 증가한 5억 83백만불로 성장하였으며 금년에는 KT-1, KFP-2 양산물량과 T-50 시제기 개발, SB 427 헬기 생산 등으로 6

억 14백만불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품 분야에서는 Boeing의 구매선 변화 등으로 실적이 크게 감소된 소재분야를 제외한 기체, 전자, 보기 분야는 완제기 인도실적과 동반 상승하였으나 엔진 부문은 해외 군수 정비 물량 등에서 대폭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KFP, UH-60 사업의 종료에서 오는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으로 99년 대비 26% 감소한 2억 9백만불이었다. 우주분야는 다목적실용위성2호 개발사업 초기로 99년에 비해 23% 감소하였으나 금년에는 5백만불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2] 수주·인도·잔고

(단위 : 백만불)

구 분	2000년	2001년
수 주	1,144	2,477
인 도	1,152	1,133
잔 고	3,492	4,836

주 : 환율 1130원/1USD 적용

[표3] 품목별 인도(생산) 현황

(단위 : 백만불)

구 분	'99	2000	2001(E)	
항 공	완제기	479.4	583.2	613.6
	기체	238.3	252.0	248.5
	엔진	282.0	209.8	229.4
	전자	7.5	15.6	12.3
	보기	9.6	87.0	21.8
	소재	4.7	3.6	2.3
	소계	1,021.5	1,151.2	1,127.9
우 주	발사체	-	0.2	-
	위성체	1.2	0.8	4.8
	소계	1.2	1	4.8
계	1,022.7	1,152.2	1,132.7	

주 : 환율 1130원/1USD 적용

수요처별로는 2000년에는 군수가 8억 76백만불로 전체의 76%를 점하여 99년에 비해 2% 가량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높은 군수 의존도는 금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은 3억 12백만불로 99년에 비해 20% 이상 증가하였으며 올해도 3억 28백만불로 5%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지속적인 증가추세이다. 이에 따라 99년에는 25%이던 수출 점유비가 2000년에는 27%, 금년에는 29%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내수는 71%로 감소할 전망이다.

**2000년 투자 796억원,  
고용 10,932명**

2000년 총 투자규모는 99년 대비 22.9% 증가한 796억원이며 2001년에는 10.7% 증가한 882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설/장비 분야는 164억원 이었던 99년에 비해 200% 증가한 493억원이 투자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올해도 이와 비슷한 484억원 가량이 투자될 것으로 보이는데, 주로 KT-1 제작용 치공구, 설계장비와 T-50 시제기 제작용 설비들이 주류를 이룬다. 2000년도 우주 분야는 6억원이 투자되었던 99년에 비

해 27% 증가한 7억80백만원이 투자되었으며 금년에는 전년대비 156% 증가한 20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0년 항공우주산업 종사자는 99년에 비해 6% 증가한 10,932명이며 금년에는 이보다 3.6% 감소한 10,537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연구개발 인력은 항공과 우주분야에서 모두 99년에 비해 각각 9%, 14% 증가하여 이 분야에 집중적으로 인력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T-50 등 시제개발 사업 및 아리랑 2호 사업 등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4] 수요별 인도(생산)현황

(단위 : 백만불)

수요	2000년			2001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군수	836.4	39.9	876.3	794.9	39.7	834.6
민수	3.2	272.5	275.7	9.6	288.5	298.1
계	839.6	312.4	1,152	804.5	328.2	1,132.7

주 : 환율 1130원/1USD 적용

[표5] 투자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분야	2000년	2001년	증감
항공	토지/건물	7,530	15,600	107.2%
	시설/장비	49,258	48,365	-1.8%
	연구개발	18,800	16,100	-14.4%
	기타	3,270	6,100	86.5%
소계		78,858	86,165	9.3%
우주	토지/건물	200	1,500	650.0%
	시설/장비	80	-	-100.0%
	연구개발	500	500	0.0%
소계		780	2,000	156.4%
계		79,638	88,165	10.7%

[표6] 고용현황

(단위 : 명)

구 분	분 야	2000년	2001년	증 감
항 공	일반관리	1,077	1,043	-3.2%
	연구개발	1,076	1,164	8.2%
	기술직	6,111	5,634	-7.8%
	기 타	2,592	2,610	0.7%
소 계		10,856	10,451	-3.7%
우 주	연구개발	66	76	15.2%
	기 타	6	6	0.0%
	기술직	4	4	0.0%
소 계		76	86	13.2%
계		10,932	10,537	-3.6%

**항공우주산업 재도약을 위한 역량의 결집을...**

지난 2000년도의 항공우주 산업계는 낮은 가동률의 어려움 속에서도 KT-1, KFP-2 양산사업, T-50 및 아리랑 2호기 개발 등의 국내 Project와 Boeing 717 전방동체, 날개 및 부품 수출 사업 등으로 명맥을 유지한 한해였다. 그러나 우리의 손으로 독자 설계 개발한 KT-1이 본격 양산에 돌입하는 한편 인도네시아에 7대의 수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우리나라 항공산업사에서 역사적인 업적으로 기록될 것이다. 또한 항공우주산업개발 세부 시행계획이 성안되어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의 장·단기 비전이 정부 차원에서 제시되었고 항공우주 기술개발을 촉진·지원하기 위해 한국항공우주기술개발연구조합의 발

족에 이어 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이 2000. 8. 11일자로 고시되면서 동 요령에 의거 12개의 부품 개발사업에 30억원의 산기반기금이 별도의 예산항목으로 지원되었을 뿐아니라 항공우주산업계의 시설 및 운전자금 지원을 위해 산기반기금 중 지식기반 산업 예산으로 150억원이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되었고 금년도에도 항공우주 기술개발자금과 산기반기금 융자 자금이 각각 70억원과 500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년은 서울에어쇼가 개최되는 해로서 협회는 동 전시회를 통해서 국제 비즈니스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함은 물론 기술개발 및 투자재원의 확충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FX사업등 가시화되는

크고 작은 군수 Project가 우리나라 산업계의 재도약의 계기가 되고 가동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하루 속히 마련하여야 하며 중단된 중소형 민항기 개발사업도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우리 모두의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금년도의 현안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